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스위스, 독일 -

---

2025.06

# 목 차

|                                     |           |
|-------------------------------------|-----------|
| <b>I.  국외공무출장 개요 .....</b>          | <b>1</b>  |
| 1. 출장개요 .....                       | 1         |
| 2. 출장목적 .....                       | 1         |
| 3. 주요 일정 .....                      | 1         |
| <b>II. 방문 및 인터뷰 주요 내용 .....</b>     | <b>3</b>  |
| 1.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GP2025) ..... | 3         |
| 2. 독일재해경감위원회(DKKV) .....            | 27        |
| <b>III. 정책적 시사점과 접목방안 .....</b>     | <b>29</b> |

# I. 공무국외출장 개요

## 1.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5년 6월 1일(일) - 2025년 6월 8일(일) (6박 8일)
- 출 장 국 : 스위스, 독일
- 출 장 자 : 재난안전연구센터 고승희, 신우리, 정예은

## 2. 출장목적

-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의 이행에 대한 진척 상황을 평가하고 논의하는 글로벌 포럼인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참석을 통하여 보령시가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활동(활동 사례 전파, 코어 파트너기관과의 교류, 세션 참석 등)을 수행하고자 함
- 독일재해경감위원회(DKKV) 사례를 통해 재난 예방과 시민 보호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전략적 대응 경험을 공유·교류함으로써 향후 보령시 재난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3. 주요 일정

| 구분            | 방문지역 | 주요내용                                                                                        |
|---------------|------|---------------------------------------------------------------------------------------------|
| 제1일<br>6/1(일) | 인천   | (출국) 인천 12:25 → 프랑크푸르트 18:30 (13시간 5분 소요)<br>(경유) 프랑크푸르트 21:10 → 제네바 22:25 (1시간 15분 소요)     |
| 제2일<br>6/2(월) | 제네바  |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The 8th Session of the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참석 |
| 제3일<br>6/3(화) | 제네바  |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The 8th Session of the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참석 |
| 제4일<br>6/4(수) | 제네바  | 일본 센다이 및 포르투갈 아마도라 회담                                                                       |
| 제5일<br>6/5(목) | 제네바  | 지방정부 네트워킹 이벤트 참석                                                                            |

| 구분            | 방문지역   | 주요내용                                   |
|---------------|--------|----------------------------------------|
| 제6일<br>6/6(금) | 본      | 독일재해경감위원회(DKKV) 방문                     |
| 제7일<br>6/7(토) | 프랑크푸르트 | (입국) 프랑크푸르트 15:30 → 인천 09:55(11시간 25분) |
| 제8일<br>6/8(일) | 인천     | (도착) 인천 09:55                          |

## II. 방문 및 인터뷰 주요 내용

### 1.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The 8th Session of the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GP)

#### 1) 개요

##### (1)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GP)

-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은 다중 이해관계자 포럼으로 참가자들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를 교환하고,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최신 발전과 동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포럼임
- 유엔 총회는 재난위험경감 글로벌 플랫폼을 재난위험경감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이행 진전을 검토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인정하고 있음
- GP에서는 정부, 유엔 시스템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2007년부터 7차례의 글로벌 플랫폼 세션 개최
  - 그 결과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심의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아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리스크 기반 이행과 모니터링에 기여하고 있음

##### (2) The 8th Session of the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GP2025)

- 일정: 2025년 6월 2일(월) ~ 6일(금)
- 장소: CICG(Centre International de Conférences, 제네바국제회의센터)
- 주제: Every Day Counts, Act for Resilience Today
- GP2025는 스위스 정부 주최로 2025년 6월 2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주관으로 개최되어 스위스 정부와 UNDRR이 공동 의장을 맡음
- GP2025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중간 검토를 위한 고위급 회의(2023년 5월)와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종료되기 전 마지막 5년 사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예정

- 2023년 5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정치선언을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을 평가 및 논의하고, 향후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재난 위험 경감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긴급성을 가지고 재약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GP2025 의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목표, 4대 행동 우선순위, 7대 글로벌 목표, 그리고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중간 검토, GP2022 공동의장 요약 및 2024년에 열릴 지역 플랫폼 회의에서 확인된 주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됨



## 2) 세션

### (1) United for Resilience: Opening of the 3rd Stakeholder Forum at GPDRR 2025

- 일시: 2025년 6월 2일(월) 10:00
- 주최: UNDRR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SEM)
- ‘회복력을 위한 연합(United for Resilience)’을 주제로 열린 제3차 이해관계자 포럼은 2022년 제7차 글로벌 플랫폼의 결과인 발리 회복력 의제(Bali Agenda for Resilience)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포용적 재난위험경감(DRR)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됨
- Mirjam Macchi(스위스 개발협력청 국장)은 최근 제네바 인근 블라텐(Blatten) 마을에서 발생한 빙하 산사태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연대를 강조함. 회복력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재난 영향을 직접 받은 이들이 지닌 지식을 행동으로 연결할 때 포용적 해결책이 더욱 효과적임을 강조함
- Achsanul Habib(유엔 주재 인도네시아 상임대표)는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위험정보 기반 정책과 포용적 접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번 포럼을 단순한 공유의 장을 넘어 “함께 행동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세션에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 자발적 약속 플랫폼(Sendai Framework Voluntary Commitments, SFVC)이 소개되었으며, Yuki Matsuoka (UNDRR 일본 사무소장)은 현재까지 총 729개 조직이 자발적 약속을 등록했음을 발표함
- 시사점 및 성과
  - 포용적이고 지역 기반의 회복력 구축이 국제 DRR 논의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센다이 프레임워크 자발적 약속 플랫폼(SFVC)은 도시나 기관이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한국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도 검토할 수 있음
  - 보령시와 같은 지역이 주민 기반 회복력 정책과 현장 경험을 국제무대에 소개하고, 향후 DRR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함



United for Resilience: Opening of the 3rd Stakeholder Forum at GPDRR 2025



United for Resilience: Opening of the 3rd Stakeholder Forum at GPDRR 2025



GP2025



## (2) Data and Financing for Disaster Displacement as Loss and Damage

- 일시: 2025년 6월 2일(월) 13:30
- 주최: Platform on Disaster Displacement (PDD),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IDMC), ActionAid International, Global Network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for Disaster Reduction (GNDR)
- 본 세션은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문제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의 측면에서 다루며, 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재정 수단의 역할을 조명함
- Christelle Cazabat(내부이주감시센터, IDMC)은 허리케인 밀턴(Milton)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화된 이주가 주민들의 삶의 기대와 미래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특히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4,580만 명이 새롭게 이재민이 되었으며, 980만 명이 여전히 이주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함
- Noralene Uy(필리핀 환경자원부)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친화 공간 마련, 이재민 대응 프로토콜, 국가 및 지방정부의 평가·보고 지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소개함
- Isoa Talemaibua(피지 정부)는 재난위험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 트리거에 기반한 파라메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 그린·블루 본드 등 지속가능한 금융수단이 신속한 재정지원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함
- Hoang Phuong Thao(ActionAid Vietnam)는 취약 지역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조기경보 수신 및 현지 상황 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가 정부의 추세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함
- Catalina Díaz Escobar(콜롬비아, Corporación Antioquia Presente)는 데이터 수집의 정치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이재민 관련 정보는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수집되어야 함을 지적함
- 시사점 및 성과
  - 재난이재민 대응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장기적인 삶의 회복력과 존엄성 보장, 그리고 정책적 대응 체계화가 필수적임
  - 데이터 기반 대응과 재난 금융 수단의 결합은 효과적인 대응뿐 아니라 정책 설계, 국가·지방 정부 간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 보령시와 같은 해안지역 도시는 지역 단위의 위험 평가, 조기경보 체계, 시민

- 참여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을 통해 유사한 접근을 강화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정부의 재난 관련 금융 역량 강화와 윤리적 데이터 수집 가이드라인 정립은 향후 한국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됨

### (3) Disaster Preparedness and Risk Reduction in Urban Areas – Building Back Better

- 일시: 2025년 6월 2일(월) 15:30
- 주최: SEM New Urban Agenda (Urban) Focal Point, Private Sector (ARISE),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keholders, Local Government (ICLEI, UCLG)
- 본 세션은 도시 지역의 재난 대비 및 위험 감소 방안, 특히 “보다 나은 재건 (Building Back Better)”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됨
- Guilherme Simões(브라질 도시부)는 Live Peripheries 프로그램과 Peripheries Without Risk 전략을 소개. 전자는 도시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기회 접근성을 보장하고, 후자는 지역 기반 위험경감 및 기후적응 전략으로서 주민 참여형 계획 수립을 강조함
- Marcie Roth(World Institute on Disability)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이 가장 입증된, 비용 효율적인 재난 사망 및 피해 감소 수단이라고 평가함. 특히 "Infinite Access"라는 다채널·다형식 접근 가능한 정보 플랫폼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함
- Mario Flores(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는 도시 환경의 도전과 기회를 설명하며, 재난 이후 복구가 아닌 사전의 위험정보 기반 개발(risk-informed development)이 중요하다고 역설함. 주거를 단순한 공간이 아닌 회복력의 플랫폼으로 보고, 사람 중심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함.
- Debbra Johnson(ARISE-US Network)은 지속가능성(SDGs), 파리기후협약,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통합적으로 다룬 보고서 Navigating the Sustainability-Resilience Nexus를 소개하며, 정책 간 연계성과 통합적 실행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함

○ 시사점 및 성과

- 도시 지역의 회복력 향상은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주민 참여, 포용성, 위험 인식 교육 등 사회적 기반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조기경보시스템(EWS)은 단순 설치가 아닌 정보 접근성과 포괄성이 중요하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플랫폼 설계가 필요함
- 보령시와 같이 기후위기 및 해안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위험정보 기반 도시 계획, 재난 대응용 주거정책, 커뮤니티 기반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또한 지속가능성-회복력 간 연계 정책 수립, 즉 SDGs·탄소중립·재난정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국내 지방정부에도 요구됨

(4) Bridging the Gap: Critical Media's Role in Strengthening Alerts and Enhancing Disaster Preparedness

○ 일시: 2025년 6월 3일(화) 10:15

○ 주최: World Broadcasting Unions

○ Matthieu Rawolle(EBU Media Intelligence Service)는 지상파 라디오 네트워크가 재난 상황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가 중단될 때도 지속적으로 작동한 사례들을 공유함

○ 라디오는 단순한 정보 제공 수단이 아니라, 현장 대응 및 대피 유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매체로 간주됨.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Raditya Jati(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 부청장)는 언론이 단순한 피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재난 대비와 행동 교육적 콘텐츠 제공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예방 정보를 전달하는 사전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함.

○ Natalia Ilieva(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는 UNDRR이 유엔기구 중 최초로 위기 시 언론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Media Saving Lives” 프로젝트는 세계방송연합(WBU)과 UNDRR이 공동 추

진하는 이니셔티브로, 피해 중심 보도에서 예방 중심 보도(proactive reporting)로 언론의 관점을 전환하려는 시도임을 소개함.

○ Grégoire Ndjaka와 Orengiye Fyneyface(African Broadcasting Union)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라디오의 접근성이 전기 공급이 없는 지역까지도 도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시에 재난정보 전달에 대한 신뢰 부족, 과학자 접근의 제도적 제약 등 언론 보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의 어려움을 제기함

○ 시사점 및 성과

- 재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라디오의 전략적 가치 재조명, 전통 미디어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필요성 확인.
- 미디어와 재난관리기관 간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은 재난대응 능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
- 재난 발생 시 라디오·방송 활용 체계, 언론과의 협력훈련, 조기경보 콘텐츠 표준화 및 공유체계 마련을 고려할 수 있음
- 미디어의 보도 방식 전환은 시민의 재난인식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재난 회복력 강화와 직결될 수 있음



Bridging the Gap: Critical Media's Role in Strengthening Alerts and Enhancing Disaster Preparedness



Enhancing National DRR Governance by 2030 – A Dialogue among National Platforms for DRR

## (5) Enhancing National DRR Governance by 2030 – A Dialogue among National Platforms for D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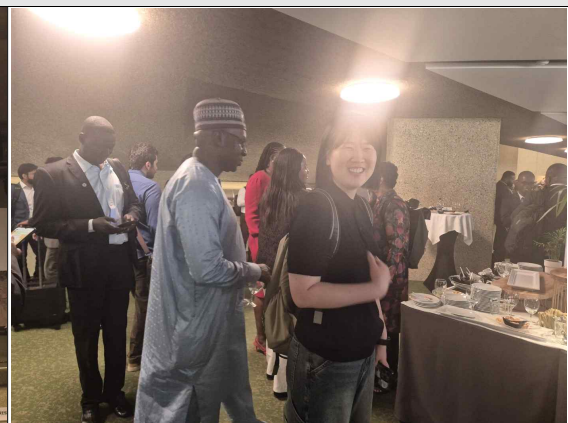
- 일시: 2025년 6월 3일(화) 12:30
- Kamal Kishore(UNDRR 대표)는 점점 복잡해지는 위험 지형(risk landscape)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위험경감 플랫폼(DRR National Platforms)의 기능 강화, 위험 경감의 정책 통합,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와 장기 계획 연계, 공통된 위험평가 체계(Common Risk Assessment Framework)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함
- Franziska Schmid(PLANAT, 스위스 국가 자연재해 플랫폼)는 스위스 PLANAT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정부 내 여러 기관의 중복 보고 및 전략 간 조정의 어려움, 위험 지도, 건축 허가 등 실용적 도구의 정비, 위기관리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라운드테이블 형식 토론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국가 플랫폼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콩고민주공화국과 타지키스탄 부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참석자들이 다음과 같은 공통 과제를 언급하며 논의함
  - 지역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 현장 기반 계획 수립과 실질적 위험 분석
  - 지역사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인력 확보
  - 재난대비 접근법의 현대화와 제도적 정비
- 시사점 및 성과
  - 재난위험경감 플랫폼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통합과 자원 연계의 중심 기구로 자리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 기반, 재정 지속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공통된 위험평가 기준 마련(Common Framework)은 중앙-지방 간 연계에 핵심적이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플랫폼과 연계가능한 지역 단위 DRR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위험지도, 위기관리 매뉴얼,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 향후 샌다이 프레임워크 마감기한인 2030년까지 지역 거버넌스를 포함한 국가적 DRR 실행력 제고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 (6) Opening Plenary –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25

- 일시: 2025년 6월 3일(화) 16:00
- Kamal Kishore(UNDRR 대표)는 이번 포럼이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임을 강조하며, 각 지역 커뮤니티의 창의성과 자발적 대응을 통해 배우고 이를 제도적 노력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함
- Amina J. Mohammed(UN 부사무총장)는 최근 스위스에서 발생한 빙하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조기경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빙하가 사라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발언
  - 매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3.2조 달러에 달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보험조차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모든 분야에서의 위험정보 기반 개발, 공공·민간의 투자 확대, 적응 필요에 부합하는 국가 재정 프레임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 Ignazio Cassis(스위스 외무부 장관)는 “오늘날 위험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과거 습지였던 지역이 이제는 산불의 중심지”라고 지적함
  - GP2025는 2030년 센다이 프레임워크 마감 전 마지막 글로벌 플랫폼인 만큼 각국이 구체적 이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과학 및 인공지능의 활용, 위험 완화 지표 개발, 자원 동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시사점 및 성과
  -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이행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정치적 의지, 정책 전환, 자원 배분의 문제임이 강조됨
  - 리스크 중심 개발, 재정·기술의 통합 활용, 과학·청년세대의 참여 확대가 글로벌 DRR 의제의 핵심 축으로 제시됨
  - 지방정부에서도 향후 재정 투자 방향, 과학 기반 위험 대응 전략, 청년 및 시민사회 참여 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연 재해가 기후위기와 복합화됨에 따라 회복력 있는 도시 개발과 국가 재정 정책의 정렬이 지역 차원에서 중요 과제로 부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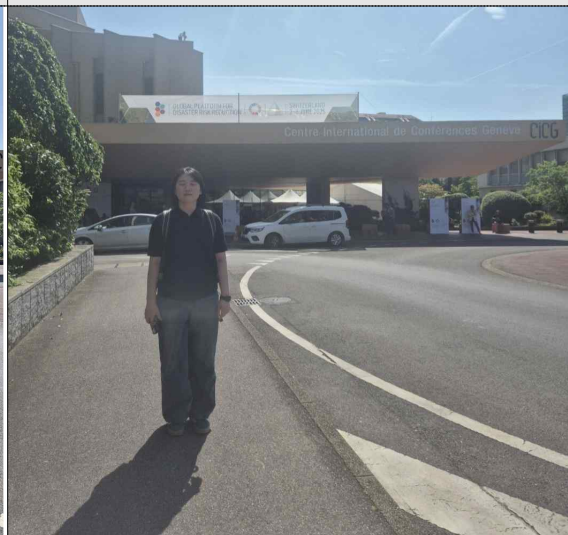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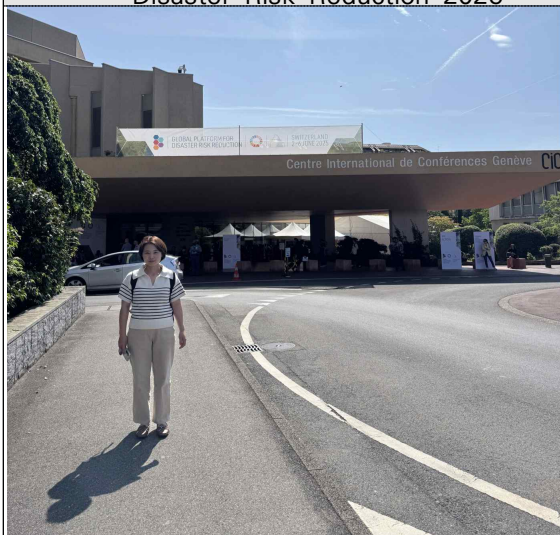


Opening Plenary –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25



Opening Plenary –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25

Swiss Official Reception



GP2025



## (7) Regional progress on implementation of the Sendai Framework and MTR recommendations

- 일시: 2025년 6월 4일(수) 10:00
- 각 지역 대표단이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및 중간점검(Mid-Term Review, MTR) 권고사항에 대한 자국 및 지역의 대응 현황을 공유함. 발표자들은 지역의 재난위험경감(DRR) 이슈와 과제를 중심으로, 실천적이고 긴급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 아프리카(나미비아): 나탕웨 파울루스 이테테 부총리는 아프리카 전역에 조기 경보시스템(EWS)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강조하며, 기술적 인프라 강화와 지역 간 협업의 중요성을 제기함
- 아시아-태평양(필리핀): 레나토 솔리둠 과학기술부 장관은 아태 지역의 복합적 재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 거버넌스'(integrated governance)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부처 및 수준 간 정책·정보 연계가 핵심 대응 전략으로 제시됨
- 유럽·중앙아시아(몬테네그로): 다닐로 사라노비치 내무장관은 새로운 위험의 예방과 감소를 중심에 둔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특히 기후 위기, 도시화 등의 복합 위험에 대한 선제적 접근을 요구함
- 미주·카리브해(세인트키츠네비스): 글렌로이 블랑쉐 국가안보부 상임장관은 해당 지역에서 복원력 있는 주택과 인프라 투자를 재난위험경감의 핵심 과제로 언급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함
- 아랍 지역(쿠웨이트): 탈랄 모하마드 알루미 소방청장은 아랍권의 DRR 대응을 보다 긴급하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역 간 정보 및 자원 공유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안됨
-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기구 및 협의체들이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진전, 격차, 과제를 공유하며,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함
- 시사점 및 성과
  - 본 세션은 보령시가 참여하는 MCR2030과 같은 도시·지역 단위 네트워크 활동이 글로벌 재난위험경감 구조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지역별 공동 대응 전략 및 기술·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공통된 과제로 제시되었



으며, 보령시는 충청남도 및 국내 타 도시들과의 DRR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화 추진이 필요함

- 각국이 강조한 핵심 아젠다(조기경보, 통합거버넌스, 인프라 투자)는 보령시의 기존 정책(해양안전, 기후적응, 시민참여형 DRR)과도 충분히 연계 가능하며, 정책 고도화와 국제 연계 확대의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음



(8) Catalysing governance solutions for disaster and climate-related displacement

- 일시: 2025년 6월 5일(목) 11:00
- 본 세션은 재난 및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 이주와 강제이주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정책 담당자 및 지역 사회 대표들이 참여한 토론 세션으로 특히 ‘재난 이후 회복’이 아닌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재정착’ 중심의 접근 필요성이 강조됨
- John Mussington(시민활동가)은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에 의한 강제이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민들이 주도한 네트워크 Stronger Caribbean Together를 설립한 배경을 소개하며 개발사업(관광개발 등)으로부터 지역사회 보호 및 자립적 회복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함
- Sakiasi Ditoka(피지 재난관리 및 농어촌개발부 장관)는 2023년 태평양 지역 기후 이주 프레임워크 및 피지 정부의 계획적 재정착 지침을 소개하며, 섬나라들의 점진적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제도적 준비를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전 계획된 이주(Planned relocation)의 필요성 제기
- Zahra Abdi Mohamed(소말리아 국가농촌개발지속가능해법센터장)는 국가 전환 계획(National Transformation Plan)에 따라, 장기 이주민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기후스마트 생계활동(climate-smart livelihoods)을 중점 추진 중임을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장기적 적응 전략과 회복탄력성 중심 개발 방향을 제시함
- Fatimah Zannah Mustapha(나이지리아 지역사회 대표)는 지역 여성의 목소리를 이주 관련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디지털, 언어, 문화 장벽 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들이 실질적인 위험 감지자이자 회복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함
- Claudinne Ogaldes Cruz(과테말라 CONRED 사무총장)는 많은 가구가 여성 가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 주도의 대응 및 회복 전략이 실제 재난관리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 재난위험 감소 정책에서의 젠더 기반 통합 전략 필요성을 제기함.
- Robert Piper(UN 전 고문)는 토지이용계획, 건축기준, 도시개발 관련 부처

의 적극적 참여가 이주 거버넌스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인도주의 대응이 아닌 제도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예방 중심 행정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 ○ 시사점 및 성과

- 기후 및 재난으로 인한 강제이주 문제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선제적 정책 설계와 취약계층 보호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함
- 보령시와 같은 연안 도시 역시 기후이주,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젠더 기반 대응, 지역사회 주도 계획적 재정착, 이주민 주체성 강화 등은 향후 지역 재난관리 및 회복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사례로 평가됨



Catalysing governance solutions for disaster and climate-related displacement

GP2025

### 3) Resilience Hub 도시 간 회담

#### (1) 일본 센다이 - 인천광역시 - 울산광역시 - 보령시 회담

- 일시: 2025년 6월 4일(수) 11:00
- 장소: La Romana
- 참석자
  - 센다이 대표단: 다카하시 신이치 부시장, 시부야 사토코 국장, 다카츠키 미오 과장, 하야사카 유리에 주무관
  - 울산광역시 대표단: 윤영배 박사, 마영일 박사(울산연구원), 조창선 팀장, 안문기 주무관, 이준혁 주무관(울산시청)
  - 인천광역시 대표단: 조성윤 박사, 안승현 박사, 연다혜 연구원(인천연구원)
  - 보령시 대표단: 신우리 박사, 오경철 과장(보령시청)
- 각 지역의 재난 경험 또는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
  - 아시아 리질리언스 허브 도시 간 협력 정례화
  - 정례화를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한 사전 실무 조율을 진행하고, IDRLF2025(인천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포럼)에서 구체적인 논의 진행
- 센다이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APMCDRR2027(Asia-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 논의
- 참가 도시별 주요 발언
  - (인천시) 센터의 현황 및 역할 소개, 연구 성과의 정책적·학술적 기여 공유
  - (센다이시)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평가 결과 공유
  - (울산시)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정책적·제도적 노력 공유
  - (보령시) 재난 이슈(해양안전, 기후적응, 재난위험경감) 및 MCR2030 참여 경험을 공유
- 주요 성과
  - 아시아 내 리질리언스 허브 도시 간 다자 협력체계의 기반 형성. 정례화를 위한 실무 협의와 연계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 가능성 확인
  - 보령시는 해양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 간 정책 협력과 공동 실천 전략 마련의 주체적 역할 수행 가능성을 확인함
  - 향후 IDRLF2025, APMCDRR2027 등 주요 국제 회의에서 공동 어젠다 개발

및 발표 기회를 통해 지방정부 간 연대 강화 기대



일본 센다이-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보령시 회담

## (2) 포르투갈 아마도라 - 인천광역시 - 보령시 회담

- 일시: 2025년 6월 4일(수) 14:30
- 장소: La Romana
- 참석자
  - 아마도라 대표단: 루이스 카르발류(Luis Carvalho, 아마도라 Coordinator)
  - 울산광역시 대표단: 윤영배 박사, 마영일 박사(울산연구원), 조창선 팀장, 안문기 주무관, 이준혁 주무관(울산시청)
  - 보령시 대표단: 신우리 박사, 오경철 과장(보령시청)
- 본 회담은 도시 회복력 및 재난위험경감 정책에 대한 경험 교류와 국제 협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됨
- 포르투갈 아마도라시는 유럽 내에서도 선도적인 재난대응 체계와 포용적 복원력 전략을 실행 중인 도시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정책 및 실행사례를 공유함
- 울산광역시는 산업도시로서의 위험요소, 기술기반 회복력 정책, 국제 협력 플랫폼 참여 경험을 소개하며, 향후 아마도라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함
- 보령시는 해양안전, 기후적응,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정책을 보유한 도시로서 아마도라 및 울산과의 연계 속에서 타 도시와 협력 기회 발굴 가능성을 모색함
- 주요 성과
  - 도시 간 재난 리스크 특성과 대응 역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예방 중심 접근, 거버넌스 강화, 시민 참여 확대가 핵심 과제로 도출됨
  -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의 정책 연계 방안,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시민 대상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공유됨
  - 보령시는 울산시와의 협력 기반을 활용하여, 향후 아마도라시와의 양자적 정책 교류 기회 확대, 또는 MCR2030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참여 강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음





포르투갈 아마도라 - 인천광역시 - 보령시 회담



포르투갈 아마도라 - 인천광역시 - 보령시 회담



GP2025

#### 4) Local Governments Networking Event

- 일시: 2025년 6월 5일(목) 18:00
- 장소: Villa Rigot
- 주최: Global Cities Hub(GCH), UNDRR
- 참석: 각국 지방정부 대표 및 유엔 관계자 등
- 본 행사는 GPDRR 2025의 공식 부대행사로, 지방정부 간 재난위험경감(DRR) 경험 공유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비공식 교류의 장으로 개최됨
- 참가 도시들은 각자의 재난관리 정책, 시민참여형 복원력 전략, 기후적응 사례 등을 공유하며 도시 간 지속 가능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눔
- 보령시는 해양안전, 기후적응, 시민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등의 정책을 소개하고, 복원력 허브 인증 추진을 위한 국제 도시 및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
- 특히, 필리핀 마카티시와 일본 센다이시, 케냐 대학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권 도시·기관과의 정책 교류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시사점 및 성과
  - 보령시는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해양안전,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경험과 정책을 비공식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음
  - 특히 필리핀 마카티, 일본 센다이, 케냐 대학 등 Resilience Hub 도시 및 관련 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정책 벤치마킹 및 후속 협력 가능성을 타진함
  - 비공식 네트워킹 자리이지만 GPDRR의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했던 자리로 향후 MCR2030, Global Cities Hub, UNDRR 등과의 실무 연계 기반 마련에 기여함
  - 보령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기존 파트너 도시들과의 관계 강화 및 신규 협력 채널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됨





# INVITATION

Geneva, 5 May 2025

**Subject:** invitation to a networking event on the margins of the 8<sup>th</sup> session of the Global Platform on Disaster Risk Reduction

The Global Cities Hub has the pleasure to invite you to a networking event on 5 June 2025 at 18:15 CEST at Villa Rigot (Avenue de la Paix 5, 1202 Geneva). It takes place on the margins of the 8<sup>th</sup> session of the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GPDRR). In the wonderful context of the historic Villa Rigot and its beautiful park, the event will allow mayors, city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of city networks to discuss the ongoing GPDRR, share experiences and knowledge, and expand their network.

The 8<sup>th</sup> session of the Global Platform for Disaster Risk Reduction (GPDRR) will take place in Geneva from 2 to 6 June 2025. The event will focus on the theme "Every Day Counts, Act for Resilience Today", and will feature events and panels on issues and solutions of interest to cities and regions, such as local risk governance, local financing, urban resilience, and localizing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For more information on why LRGs should participate, the GCH held a briefing ahead of the GPDRR. You can contact us at + 41 (0) 22 559 46 00 or via email at [info@globalcitieshub.org](mailto:info@globalcitieshub.org) for more information.

Yours sincerely,

  
Anh Thi Duong  
Co-director, Global Cities H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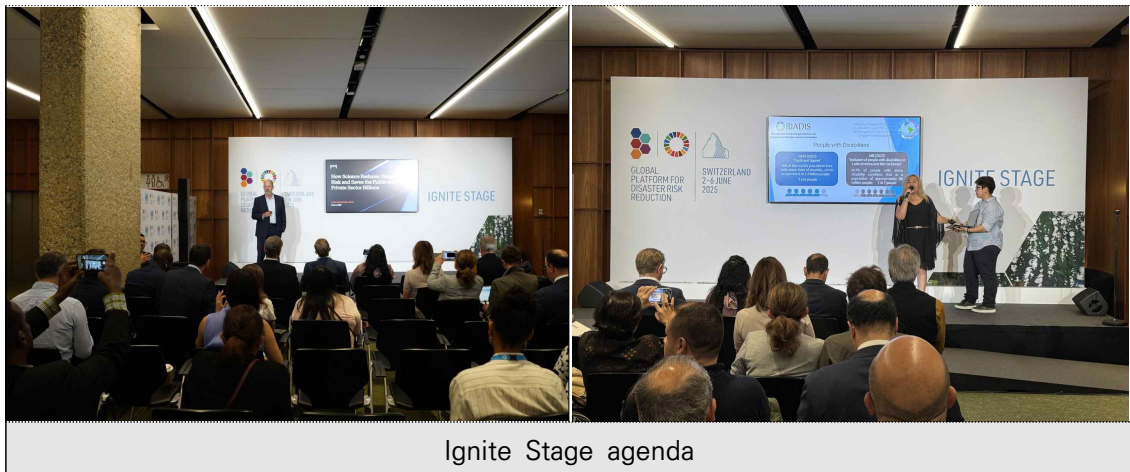
  
Kamela Kanyika  
Co-director, Global Cities Hub

## Local Governments Networking Event

## 5) 기타 부대행사

### (1) Ignite Stage agenda

- Ignite Stage는 GP2025의 공식 세션 및 부대행사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 아이디어, 창의적 프로젝트, 지역 기반 접근법 등을 소개하는 무대 형식의 발표 세션임
- 발표자는 각 15분 내외로, 기술, 교육, 커뮤니케이션, 정책, 지역현장 중심의 실천 사례 등을 소개함
- 주제의 범위가 청소년·장애인·이주민·과학기반 DRR·기후위험·디지털 기술·예술적 소통 전략 등으로 매우 다양했음
- 시사점
  - Ignite Stage는 보령시가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재난대응, 포용적 교육, 디지털 기반 DRR 정책과 접점이 많은 사례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장이었음
  - 장애인·고령자 대상 DRR, 학교 기반 안전교육, 커뮤니티 신뢰지수 기반 조기경보,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 등은 보령시의 현장 적용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로 판단됨



### (2) Innovation Platform 2025

- 혁신 플랫폼은 GPDRR 참가자들이 재난위험경감(DRR) 분야의 기술·교육·정책적 혁신 사례를 실물로 전시하고, 실험적 교육과 기술 시연을 통해 경험적 학습을 촉진하는 공간임



- 다양한 도시, 국가, 민간 및 국제기구가 디지털 기술, 조기경보시스템, 시민 참여 교육도구, 재난주택, 장애인 접근성 등 폭넓은 혁신 사례를 시연함
- 주요 전시 및 혁신 사례
  - 행정안전부: Korean School Safety Programme(청소년을 위한 복원력 교육)
  - 필리핀 민방위청: 성과 기반 국가재난관리계획(RBMES)
  - NEPAL Oxfam: 여성 주도의 복원력 구축
  - SEEDS(인도): AI 기반 문화형 위험 커뮤니케이션
  - COPE: 아동 대상 무료 재난교육 콘텐츠
  - EWS1294: 네팔의 저비용 국가 조기경보시스템
  - Easy Build: 기후 복원력형 모듈형 주택
  - UNOPS: 분쟁 지역 대상 위성 기반 홍수예측 기술
  - Germany: 전 정부 차원의 DRR 이행 전략
  - ICIMOD (히말라야 지역 협력기구): 지역사회 기반 조기경보시스템(CBFEWS)
  - Save the Children: VR 기반 안전 체험 콘텐츠
  - Disability Inclusive DRR: 장애인 중심의 기후 행동과 재난대응 도구
  - City Resilience Program: 도시 회복력 분석 솔루션 'City Scan'
- 시사점 및 성과
  - 재난위험경감 기술과 정책의 진화가 단순한 예방을 넘어 포용적, 경험 기반, 맞춤형 접근으로 확대되고 있음
  - 보령시의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MCR2030 기반 DRR 활동, 해양안전 및 기후적응 전략을 국제 혁신 사례들과 연결 지으며 기술·교육·참여 연계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Innovation Platform 2025

## 2. 독일재해경감위원회(DKKV, Deutsches Komitee Katastrophenvorsorge e.V.)

- 일시: 2025년 6월 6일(금) 10:00
- 장소: 독일재해경감위원회(Kaiser-Friedrich-Straße 13, 53113 Bonn)

### 1) 기관 개요

- DKKV는 1990년대 UN의 국제자연재해감소 10년(IDNDR) 캠페인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독일을 대표하는 DRR 민관 네트워크 및 국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중립적이고 비영리적인 조직으로, 정책·학계·행정·시민사회 간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며 DRR,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발전(SDGs) 간 통합 전략에 중점을 둠

### 2) 조직 및 활동

- DKKV는 정책 결정자,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식 전달, 행동 권고, 국제협력 연계 기능을 수행함
- 다양한 프로젝트 및 연구, 포럼 등을 통해 위험 인식 제고, 정보 확산, DRR 전략 수립을 지원함
- UNDP가 제시한 5대 리질리언스 역량(예측, 예방, 흡수, 적응, 변환)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 및 시스템에 적용
- DKKV 주요 프로젝트
  - Dürre 2018: 독일 가뭄 관련 영향 분석 및 정책 권고 프로젝트
  - MYrisk: 미얀마 대도시의 다중 재난위험(지진, 홍수 등) 대응 프로젝트
  - Aqua-X-Net: 기후 변화로 인한 수재해 대응을 위한 연구 연계 및 정보 공유 프로젝트

### 3) DKKV의 전략적 역할

- 과학-정책-실행 간 정보 흐름 연결(Synthesis) 기능 수행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 현장의 중복 방지 및 시너지 창출
- 미디어, 시민, 전문가 간 소통 확대, serious game 활용 등 혁신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시도

#### 4) 위기 대응 사례 발표 및 토론: 2021년 독일 홍수

- 사망자 135명, 피해액 300억 유로 규모의 대형 수해 사례 분석
- 분석 및 토론 결과
  -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 정보 시스템 개선 (단순 기술이 아닌 사회적 프로세스로 인식)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기관 간 조정 역량 강화
  - 재난 이후 복원력 중심의 재건 전략(BBB, Build Back Better) 강조

#### 5) 시사점 및 성과

- DKKV는 중앙정부 외곽의 DRR 실천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한국에서도 중앙-지방-시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 기구 또는 연구 허브의 필요성을 시사함
- 사고 이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 및 교육 중심 DRR 전략, 재난 후 학습 시스템화는 보령시 정책 기획 방향에 적용 가능함
- 향후 DKKV와의 실무적 협력 채널 구축(공동 연구, 워크숍,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보령시 DRR 정책의 국제적 수준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Ⅲ. 정책적 시사점과 접목방안

#### 1) 시민참여형 재난위험경감 체계의 제도화 및 포용적 정책 기반 강화

- GP2025와 DKKV 사례를 통해 “재난 회복력의 시작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함
- 특히 스위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재난대응체계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장애인, 고령자, 여성,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필리핀의 사례처럼 재해 발생 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친아동적 공간과 프로토콜이 전국적으로 작동되며, 이는 단순 대응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재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제도 기반임
  - 일본 센다이시와 ICIMOD(히말라야 지역 협력기구)의 지역기반 조기경보시스템(CBFEWS)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위험 정보를 수집, 해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로, 지역 자율성과 대응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혁신적 모델임
  - 마카티시의 경우, 도시 재난관리조직에 커뮤니티 리더들이 정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훈련·예산편성에도 역할을 수행함
- 보령시 또한 시민참여형 해수욕장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안전보안관 제도, 시민조사단 구성 등 유사한 정책을 운영 중이나, 아직 그 제도적 기반과 행정 연계 구조가 미흡한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시민참여형 DRR 활동을 보령시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안전서비스 모델’을 시범 구축하고, GP2025 사례와 연계한 공공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 시민안전협의체 등 거버넌스 기반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위험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 2) 데이터 기반·디지털 기술 중심의 지역 재난관리 고도화 전략 필요

- GP2025 Innovation Platform 및 Ignite Stage에서 확인된 주요 흐름은 ‘기술 기반의 예측과 대응, 그리고 행동 변화 유도’임. 참여기관들은 AI, 위성기반 관측, 실시간 센서 데이터, 가상현실(VR), 사용자 중심 경보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을 재난관리 전 과정에 접목하고 있음



-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는 보령시의 시스템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함
  - EWS 1294(네팔): 국가 차원의 조기경보 체계를 지역언어 및 문자서비스 기반으로 구현해 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에 성공
  - City Scan(City Resilience Program): 도시별 회복력 현황을 실시간 스캔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
  - Save the Children의 VR 재난체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몰입형 콘텐츠를 활용, 실제 위험 대응 시뮬레이션 수행
  - Community Trust Index(IFRC): 조기경보와 대피행동의 핵심은 ‘주민의 신뢰’라는 점을 계량화하여 정책에 반영
- 보령시는 통합 해양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시 및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데이터의 통합·분석·활용 측면에서는 기술 고도화 여지가 큼
  - 해양안전 중심 시스템에서 기후위기·산불·지진 등 복합위험 통합 대응 플랫폼으로 확대 추진
  - 지역 신뢰도 기반 조기경보 모델(Community Trust Index)을 보령시 커뮤니티 기반 조기경보 체계에 시범 도입
  - 보령시민 대상 VR 기반 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연계
  - 안전보안관 등 현장 중심 인력에게 모바일 기반 위험보고 앱 보급을 통한 실시간 정보 수집 강화

### 3) 국제협력 및 도시외교 전략의 본격적 구축

- GP2025 참가 및 DKKV 방문, 그리고 일본 센다이·필리핀 마카티·케냐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도시 간 재난관리 협력 수요 확인
  - GP2025는 복원력 허브(Resilience Hub) 인증을 준비 중인 도시에게 자신들의 정책사례와 기여도를 글로벌 파트너에게 설명하고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장임
  - 스위스 개발협력청, GCH, UNDRR 등 국제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공동사업(교육, 혁신, 시민참여 등) 발굴이 가능함



- 센다이시·울산·인천과의 정례협력은 동북아시아 리질리언스 허브 연합(가칭) 구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 가능
  - DKKV는 연구, 매뉴얼 공유, 공동 세미나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MCR2030 참여 도시로서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함
- 복원력 허브 인증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예: GCH, UNDRR, ARISE 등)
  - 공동 프로젝트(시민교육 콘텐츠, 리질리언스 지표 개발 등) 제안 및 유치
  - GPDRR, APMCDRR, IDRLF 등의 정례 행사에 지속적 참가 및 발표 추진

## 부록 : 독일재해경감위원회(DKKV) 발표자료

  
Deutsches Komitee Katastrophenvorsorge e.V.  
German Committee for Disaster Reduction

---

# Deutsches Komitee Katastrophenvorsorge e.V.

## German Committee for Disaster Reduction

**Dr. Benni Thiebes**

Vortrag für die Delegation der Stadtverwaltung Boryeong und des Chungnam Research Institute

Geschäftsstelle des DKKV  
31.06.2025



  
Deutsches Komitee Katastrophenvorsorge e.V.  
German Committee for Disaster Reduction

---

## Agenda

1. Vorstellung des DKKV
2. Resilienz Konzepte
3. DKKV-Projekte
  - Dürre
  - Myrisk
  - Aqua-X-Net
4. Flutkatastrophe
5. Diskussion



## Geschichte des DKKV



- |                |                                                                                                                                                                                                                       |
|----------------|-----------------------------------------------------------------------------------------------------------------------------------------------------------------------------------------------------------------------|
| <b>1990er</b>  | Internationale Dekade zur Reduzierung der Naturkatastrophen der Vereinten Nationen in den 1990ern                                                                                                                     |
| <b>1989/90</b> | Gründung als Deutsches IDNDR- Komitee zur Katastrophenvorbeugung<br><br>Nationale Plattform und Mittler zu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br><br>Koordination der Aktivitäten zur Katastrophenvorsorge in Deutschland |
| <b>2000</b>    | Umbenennung in „Deutsches Komitee Katastrophenvorsorge“                                                                                                                                                               |
| <b>2015</b>    | Umstrukturierung und neue strategische Ausrichtung                                                                                                                                                                    |
| <b>2022</b>    | Neue strategische Ausrichtung                                                                                                                                                                                         |



## Vision und Missionen



## DKKV Aktivitäten



### Netzwerk

**Austausch und Synergien**  
*Fachöffentlichkeit*

- Website, Newsletter, Magazin, soziale Medien
- Workshops und Statements
- Austausch von Informationen, Erfahrungen und Problemlagen
- Projektteilnahmen und Beratungsaufträge koordinieren
- DKKV Förderpreis
- Mitgliedschaft in internationalen Netzwerken



### Beratung

**Handlungsempfehlungen geben**  
*Entscheidungsträger:innen*

- Entscheidungsträger:innen mit Ergebnissen aus Wissenschaft und Praxis versorgen
- Lessons learned und best-practices Studien
- Begleitung und Umsetzung internationaler Abkommen
- Krisenszenarien entwickeln
- Synthese-Berichte



### Wissenstransfer

**Bewusstsein schaffen**  
*Zivilgesellschaft & Bevölkerung*

- Wissensmanagement und –transfer in die Praxis
- Handlungsempfehlungen für Entscheidungsträger\*innen und die Zivilgesellschaft
- Öffentliche Vorträge
- Resilienzberichte auf nationaler Ebene
- Future labs

5

## DKKV Mitglieder



### Institutionelle Mitglieder

- Organisationen im Bereich Katastrophenvorsorge



Bundesamt  
für Bevö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



**Deutscher Wetterdienst**  
Wetter und Klima aus einer Hand



### Persönliche Mitglieder

- DRR Expert:inn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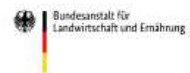
### Young Professionals

- Studierende und junge Expert:innen



### Netzwerke

- Flut2021-Plattform
- (Inter-) nationale Netzwerke und Partner



10



## DKKV Mitglieder

### Institutionelle Mitglieder

- Organisationen im Bereich Katastrophenvorsorge

### Persönliche Mitglie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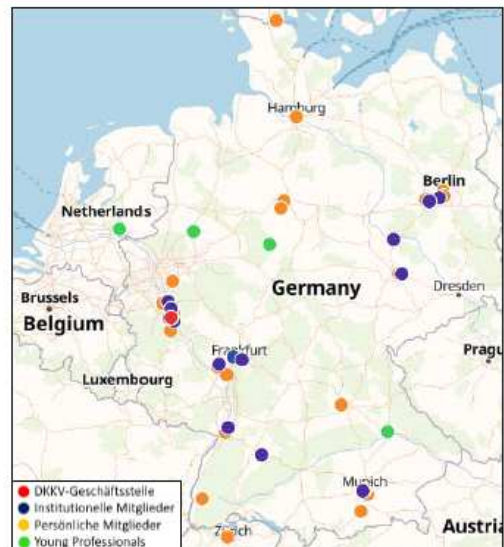
- DRR Expert:innen

### Young Professionals

- Studierende und junge Expert:innen

### Netzwerke

- Flut2021-Plattform
- (Inter-) nationale Netzwerke und Partner



11

## DKKV Mitglieder

### Institutionelle Mitglieder

- Organisationen im Bereich Katastrophenvorsorge

### Persönliche Mitglieder

- DRR Expert:innen

### Young Professionals

- Studierende und junge Expert:innen

### Netzwerke

- Flut2021-Plattform
- (Inter-)nationale Netzwerke und Partner



12

## DKKV Mitglieder

### Institutionelle Mitglieder

- Organisationen im Bereich Katastrophenvorsorge

### Persönliche Mitglie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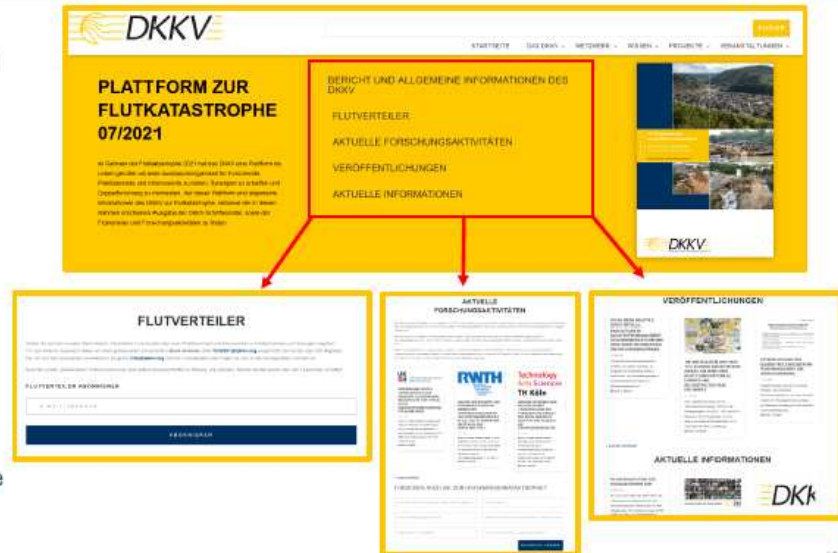
- DRR Expert:innen

### Young Professionals

- Studierende und junge Expert:innen

### Netzwerke

- Flut2021-Plattform
- (Inter-)nationale Netzwerke und Partner



13

## DKKV Mitglieder

### Institutionelle Mitglieder

- Organisationen im Bereich Katastrophenvorsorge

### Persönliche Mitglieder

- DRR Expert:innen

### Young Professionals

- Studierende und junge Expert:innen

### Netzwerke

- Flut2021-Plattform
- (Inter-)nationale Netzwerke und Partner

**Disaster Risk Management Knowledge Centre**

**Knowledge Action Network on Emergent Risks and Extreme Events**  
Reducing Disaster Risks under Environmental Change

**DCNAustria**  
Disaster Competence Network Austria



**E-STAG**  
SENDAL FRAMEWORK FOR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KLIMANAVIGATOR**

**Nationale Kontaktstelle für das Sendal Rahmenwerk Deutschland**

**IRDR**  
Integrated Research on Disaster Risk

**AFPCN**  
Africa's Future Competence Network

**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CERIS**  
Community for European Research and Innovation for Security

**GI:DRM**  
Global Initiative on Disaster Risk Management

**Futouris**  
Innovation, Resilience, Sustainable Future

**KLIMAHaus BREMERHAVEN**

**REKLIM**  
Hochschule-Verbund Regionale Klimaaenderungen

**Bonner Netzwerk**  
Internationaler Katastrophenschutz und Risikomanagement

14



## DKKV Mitglieder

### Institutionelle Mitglieder

- Organisationen im Bereich Katastrophenvorsorge

### Persönliche Mitglieder

- DRR Expert:innen

### Young Professionals

- Studierende und junge Expert:innen

### Netzwerke

- Flut2021-Plattform
- (Inter-)nationale Netzwerke und Partner



**Bonner Netzwerk**  
Internationaler Katastrophenschutz  
und Risikomanagement

15

## Vorstand und Geschäftsstelle

### Vorstand



### Geschäftsstelle



16

## DKKV als Forschungspartner

- Aktive Weiterentwicklung von Katastrophenvorsorgestrategien und im Bereich des Bevölkerungsschutzes
  - Verbindung zwischen Wissenschaft, Praxis und Politik
  - Bedarfsorientierte Unterstützung von Forschungsvorhaben
- **Vernetzung vielfältiger Expertise aus verschiedenen operativen und wissenschaftlichen Bereichen der Katastrophenvorsorge**

### KOORDINATION

- Anleitung und Anknüpfung von Forschungsarbeiten
- Vermeidung von Doppelforschungen

### KOMMUNIKATION

- Steuerung von Kommunikation in Forschungsprojekten
-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Ergebnisverbreitung

### SYNTHESE

- Synthesen bestehender Forschungsergebnisse
- Erstellung von Vorgehensweise zur bedarfsgerechten Aufarbeitung

17

## Kernthema: Risikokommunikation

- Sachliche und unaufgeregte Risikowahrnehmung
- Etablierung einer angemessenen Risikokultur
- Entwicklung zielgruppengerechte Kommunikationsansätze



18

## Kernthema: Serious Games

- Attraktive Methode der Risikokommunikation
- Innovative Methode mit steigendem Interesse
- Entwicklung eigener Spiele und Anwendung in Workshops
- Digitale und analoge Spiele
- Hoher Grad an Interaktivität
- Austausch im Vordergrund



## Resilienzkonzepte



## Resilienzkonzep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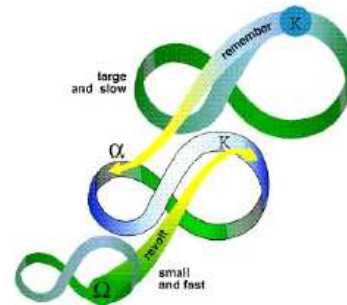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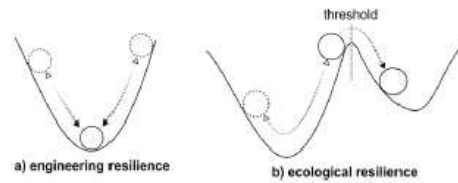
- Resilienzkonzepte haben lange Tradition unterschiedlicher Disziplinen

- Robustheit und Widerstandskraft
- Erholung und Wiederherstellung
- Anpassung und Lernfähigkeit

- Anwendung auf Systeme, Individuen, Gruppen, Gesellschaften, Infrastrukturen

### (Sozio-) Ökosystemforschung

1. Engineering resilience
2. Ecological resilience
3. Panarchy



21

## Resilienz Konzepte

- Konzept und Leitprinzip internationaler Rahmenwerken
  - Sendai Rahmenwerk für Katastrophenvorsorge 2015-2030
  - Pariser Klimaabkommen
  - Nachhaltige Entwicklungsziele
  - Neue Urbane Agenda
- Resilienz erfordert Kooperation zwischen Akteur:innen (z.B. Wissenschaft, Praxis, Verwaltung, Politik)
- Resilienz Kapazitäten (UNDP)
  - Antizipieren (anticipative)
  - Verhindern (preventive)
  - Absorbieren (absorptive)
  - Anpassen (adaptive)
  - Transformieren (transform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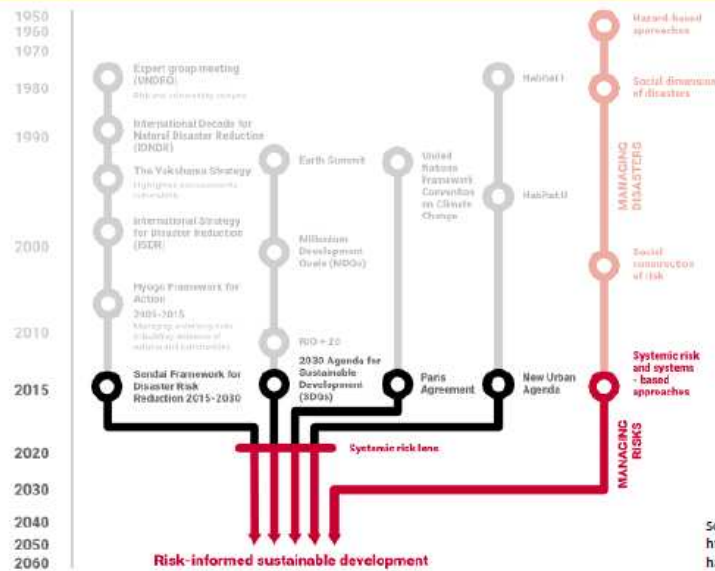
**Definition**

*"the ability of individuals, households, communities, cities, institutions, systems and societies to prevent, resist, absorb, adapt, respond and recover positively, efficiently and effectively when faced with a wide range of risks, while maintaining an acceptable level of functioning without compromising long-term prospec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eace and security, human rights and well-being for all"*

UNDP 2020

22

## Förderung von Synergien für CCA, DRR and SDGs



Source:  
[https://gar.undrr.org/sites/default/files/chapter/2019-05/Chapter\\_1.pdf](https://gar.undrr.org/sites/default/files/chapter/2019-05/Chapter_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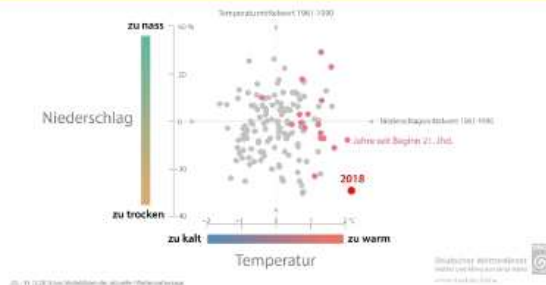
23

## DKKV-Projekte: Dürre

24



## Dürre 2018 in Deutschland



- Weitreichende Folgen auf Landwirtschaft, Forstwirtschaft, Gewässer und Gesellschaft
- Fehlender Gesamtüberblick der Folgen und Anpassungsmaßnahmen
- Durchführung eines Workshops mit UFZ
- Erarbeitung eines Statements mit Handlungsempfehlungen

Sources: [https://www.dwd.de/DE/presse/pressemitteilungen/DE/2018/20181220\\_jahr2018\\_rekord\\_news.html](https://www.dwd.de/DE/presse/pressemitteilungen/DE/2018/20181220_jahr2018_rekord_news.html)  
[https://www.dkkv.org/fileadmin/user\\_upload/Veroeffentlichungen/Statements/DKKV\\_Statement\\_Duerre2018\\_Oktober2018.pdf](https://www.dkkv.org/fileadmin/user_upload/Veroeffentlichungen/Statements/DKKV_Statement_Duerre2018_Oktober2018.pdf)  
[https://www.dkkv.org/fileadmin/user\\_upload/Veroeffentlichungen/Publikationen/Flyer\\_Hitze.pdf](https://www.dkkv.org/fileadmin/user_upload/Veroeffentlichungen/Publikationen/Flyer_Hitze.pdf)



25

## DKKV-Projekte: MYrisk

26

## Projekt: MYrisk

Management multipler Risiken bei Extremereignissen in schnell wachsenden

(Mega)Städten Myanmars

**Fokus** Erdbeben, Überschwemmung, Zyklonen

**Zuwendungsgeber**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

**Partner** DE: Universität zu Köln, Stadtentwässerungsbetriebe Köln (StEB), Berufsfeuerwehr Köln (AFRB), Erdbebenwarte Bensberg (ErdBW), Notfallseelsorge (NotfS)

MM: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Regional Government, Uni of Yangon, Myanmar Environment Institute, Nay Pyi Taw City Development Committee, Mandalay City Development Committee, Mawlamyine City Development Committee, Taunggyi City Development Committee, Uni of Mandalay, Mawlamyine Uni, Taunggyi Uni

INT: ICLEI SE-Asia, Yangon

**Projektdauer** November 2017 bis August 2027

**Webseite** <http://riskurbmyanmar.uni-koeln.de/18590.html>

Quelle: <https://riskurbmyanmar.uni-koel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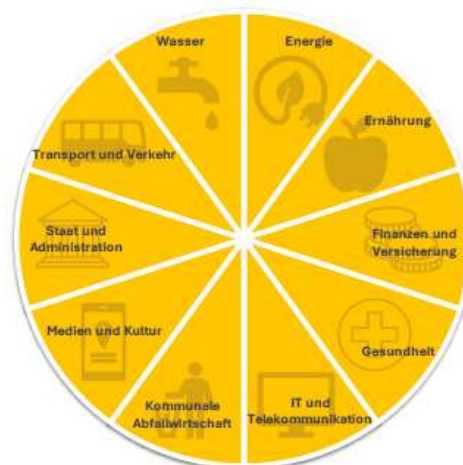
27

## Konzepte und Richtlinien vom Netzwerk



Sources:  
schlier / Getty Images  
Unsichtbar e.V. (<https://www.sos-kapsel.info/>)  
BBK, modified ([https://www.bbk.bund.de/SubSites/Kritia/DE/Einfuehrung/Sektoren/sectoren\\_node.html](https://www.bbk.bund.de/SubSites/Kritia/DE/Einfuehrung/Sektoren/sectoren_node.html))

### Kritische Infrastrukturen



28

## Konzepte und Richtlinien aus Netzwe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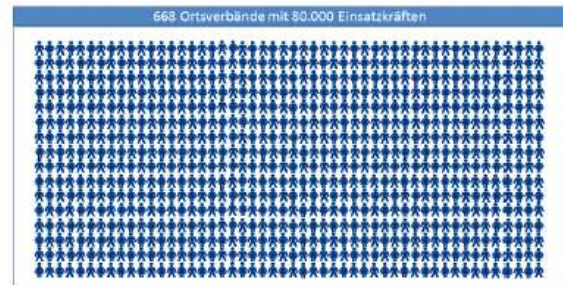
Pro Person und Monat (2019) in Deutschland

- 100 kg
- 100 kg
- 100 kg

1000 kg pro  
Ausgangspunkt

1000 kg pro  
Ausgangspunkt

1000 kg pro  
Ausgangspunkt



Quelle:  
Benni Thiebes  
[http://www.thw.de/DE/THW/Bundesanstalt/Dienststellen/dienststellen\\_node.html](http://www.thw.de/DE/THW/Bundesanstalt/Dienststellen/dienststellen_node.html)

29

## Wissenstransfer nach Deutschland



Source: Benni Thiebes

30



## DKKV-Projekte: Aqua-X-Net

31

### Projekt: Aqua-X-Net

#### Vernetzungs- und Transfervorhaben Aqua-X-Net

Begleitendes Verbundprojekt der BMBF-Fördermaßnahme  
„WaX – Wasser-Extremereignisse“

|                        |                                                                        |
|------------------------|------------------------------------------------------------------------|
| <b>Fokus</b>           | Wasserextremereignisse (Starkregen, Hochwasser, Dürren, Niedrigwasser) |
| <b>Zuwendungsgeber</b>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                     |
| <b>Partner</b>         | Universität Potsdam                                                    |
| <b>Projektdauer</b>    | November 2021 bis Oktober 2025                                         |
| <b>Webseite</b>        | <a href="https://www.bmbf-wax.de/">https://www.bmbf-wax.de/</a>        |



© links: iStock; ZU\_09 | rechts: AdobeStock; PIX/Metex

Quelle: <https://riskurbanmar.uni-koeln.de/>

32

## Verbundprojekte der WaX-Fördermaßnahme

### Digitale Instrumente für Monitoring, Analyse, Vorhersage und Kommunikation



### Risikomanagement gegenüber hydrologischen Extremen



### Urbane extreme Wasserereignisse



Datengrundlagen: DGM, INSE, GABRI

0 50 100 km

33

## Aktivitäten & Aufgaben Aqua-X-Net

### Organisation von Treffen der Verbundprojekte

- Kick-Off Event im Mai 2022, inkl. Etablierung eines Lenkungskreises
- Statusseminar im September 2023

### Vernetzung und Synthese

- Workshops zu verschiedenen Querschnittsthemen
- Interne Online-Umfragen zur Bildung eines verbundübergreifenden Verständnisses von Begriffen und Herangehensweisen

### Praxistransfer

- Schaffung von Formaten, die einen intensiven Wissenstransfer ermöglichen

### Kommunikation und Dissemination

- Kontinuierliche Kommunikation der Ergebnisse für verschiedene Zielgruppen



Umfrage unter den Forschungsverbänden zu:

- den verwendeten Definitionen von Wasserextremen
- den genutzten GeoDaten
- der Berücksichtigung des Klimawandels

Kommunikation  
& Partizipation in  
Forschungs-  
projekten

Wasser-  
speicherung in der  
Landschaft

Transfer von  
wissenschaftliche  
n Erkenntnissen in  
die Praxis

Modellierungen  
und Methoden aus  
der Informatik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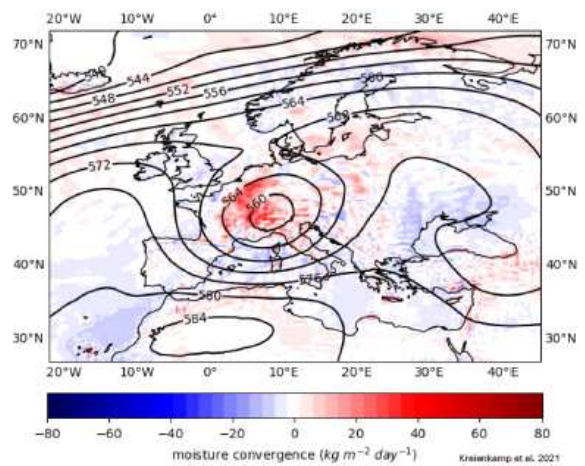


## Flutkatastrophe 2021

35

### Überblick Flutkatastroph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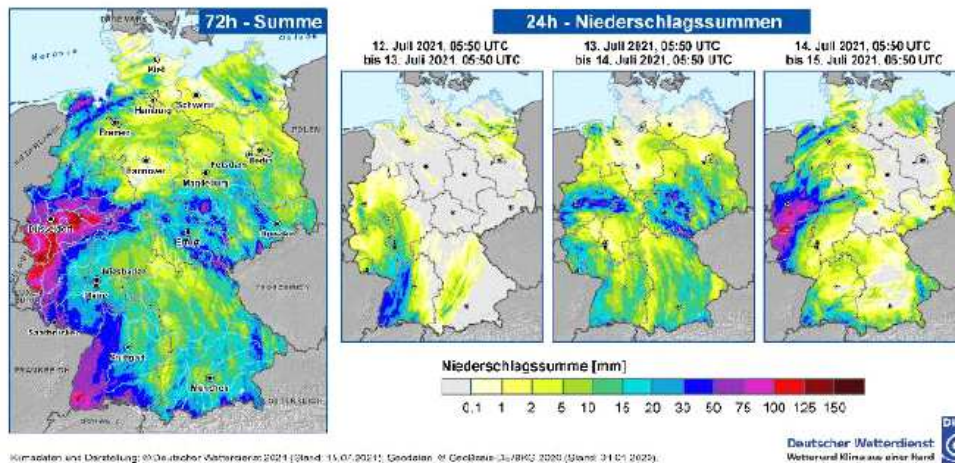
- 12.- 19.07.2021 Tiefdruckgebiet «Bernd»
- Großflächig und quasi-stationär
- Hauptsächlich betroffen waren Deutschland, Belgien, Luxemburg und die Niederlande
- Tödlichste wasserbedingte Katastrophe in Deutschland seit 60 Jahren
- Massive Schäden an der Infrastruktur; teuerste Katastrophe Deutschlands (30 Mrd. €)
- Hot-spot: Ahr Valley in Rheinland-Pfalz
- Enorme Auswirkungen auf die Gesellschaft
- Wir müssen von dieser Katastrophe lernen!



36

## Niederschl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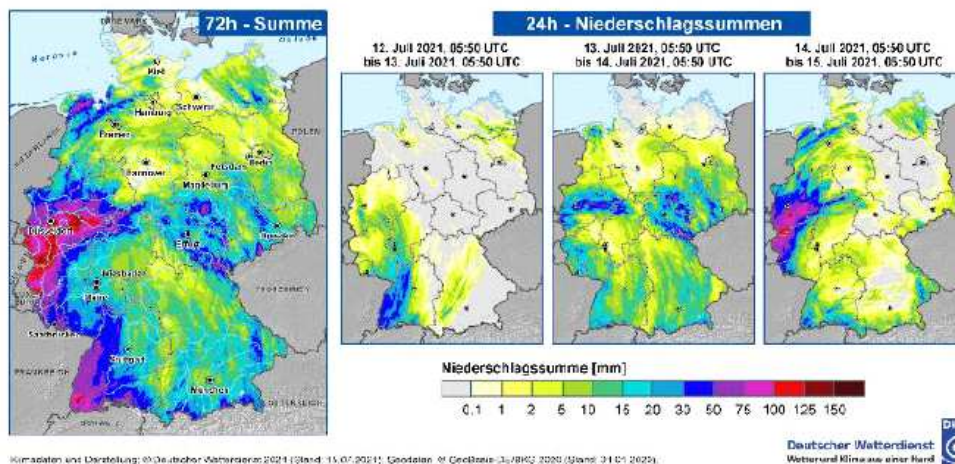
Tief Bernd über Deutschland,  
Summe des Niederschlags aus Radar: 12. Juli, 05:50 UTC - 15. Juli 2021, 05:50 U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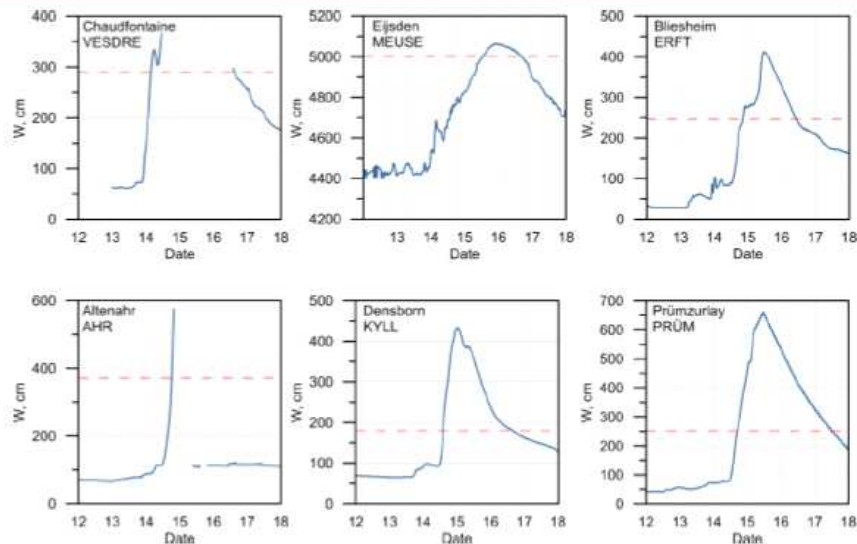
37

## Niederschlag

Tief Bernd über Deutschland,  
Summe des Niederschlags aus Radar: 12. Juli, 05:50 UTC - 15. Juli 2021, 05:50 UTC



37



## Klimawandel

## Medienberichte

- „Nie dagewesene Überflutungen“
- „Erster Vorgeschmack des Klimawandels“

## Wissenschaftliche Studien

- Zusammenhang Jetstream und Extremwetter
- Attributionsstudie (Kreienkamp et al. 2021)
- Niederschlagsintensität 3 – 19% höher durch KW
- Vergleichbare Events bis zu 9-fach wahrscheinlicher als zuvor (1.2° C kühlere Welt)
- In einer +2 °C Welt sind Ns-Intensitäten bis zu 6% höher und Wahrscheinlichkeit 1,2 bis 1,4 höher





## Historischer Kontext



40

## Auswirkungen im Ahrtal

### Menschliche Opfer

- 42.000 Betroffene
- 766 Verletzte/ 1 Vermisster
- 135 Tote
  - 106 Opfer älter als 60 Jahre (~80%)

### Infrastrukturschäden

- 8.800 Häuser beschädigt/ zerstört
- 103 Brücken stark beschädigt/ zerstört
- >4.500 Autos beschädigt/ zerstört
- 106 km Straßen und 115 km Bahnschienen beschädigt/ zerstört
- 15 Pflegeeinrichtungen betroffen
- 17 Schulen zerstört
- Alle Kläranlagen zerstört



41

## Aktivitäten nach der Flut 2021

### Öffentlichkeitsarbeit

- Vermittlung von Presseanfragen
- Website, Newsletter, Statement
- Flutbericht

### Flutplattform

- Mailverteiler mit 200+ Mitglieder
- Workshopreihe
- Koordinierung von Forschungsinteressen und -aktivitäten
- Förderung von Synergien
- Vermeidung von Doppelarbeit und Fragebogenmüdigkeit



42

## DKKV-Berichte zur Flut 2021



43



## Übergeordnete Lehren aus der Flutkatastrophe 2021

- Übergeordnete Perspektive
- Resilienz fordert aus Krisen und Katastrophen zu lernen
- Keine *Lessons learned* sondern *lessons identified* oder *lessons to learn*
- Grundlage: Berichte, Analysen, Workshops, Diskussionen
- Lehren vielfach nicht grundlegend neu, aber dennoch relevant
- Weitere Herausforderungen



Kachelmann zum Ahrtal: „Niemand hätte sterben müssen“  
(Quelle: DPA - Stephen Weber 2022 in Allgemeine Zeitung)



Deutschland wurde präzise gewarnt – die Bürger aber nicht  
(Quelle: DPA - Der Tagesspiegel 2021)

44

## 1. Stärkung der Risikowahrnehmung und Förderung einer positiven Risikokultur

- Lokale Risiken sind der Bevölkerung oft unbekannt und werden unterschätzt
- „Vollkaskomentalität“
- über Risiken in einem positiven Umfeld zu sprechen

### Herausforderungen

- Evaluierung und Nutzung internationaler Erfahrungen
- Entwicklung neuer Bildungsformate für unterschiedliche Akteure



Hochwassermarkierungen an einem Haus in Walporzheim im Ahrtal  
(Quelle: B. Thiebes 2021)

45

## 2. Verbesserung der Risikokommunikation

- Sachliche und verständliche Risikokommunikation
- ganzheitliche Kommunikation von Risiken, einschließlich Gefährdung, Anfälligkeit und Schutzkapazitäten

### Herausforderungen

- Entwicklung zielgruppenorientierter und attraktiver Formate z. B. in Schulen, auf Festivals und Veranstaltungen
- Integration in Alltagsleben



"Disaster Preparedness Tokyo" (Tokyo Bousai)  
(Quelle: [www.metro.tokyo.lg.jp](http://www.metro.tokyo.lg.jp) 2023)

46

## 2. Verbesserung der Risikokommunikation

- Sachliche und verständliche Risikokommunikation
- ganzheitliche Kommunikation von Risiken, einschließlich Gefährdung, Anfälligkeit und Schutzkapazitäten

### Herausforderungen

- Entwicklung zielgruppenorientierter und attraktiver Formate z. B. in Schulen, auf Festivals und Veranstaltungen
- Integration in Alltagsleben



47

### 3. Fokus auf Vorsorge

- Vorsorge ist besser als Nachsorge
- Nicht nur Aufgabe von der Politik, sondern auch bei der Bevölkerung selbst
  - Warnapps, Versicherungen, etc.
- Maßnahmen müssen mit effektiver Risikokommunikation kombiniert werden

#### Herausforderungen

- Partizipative Ansätze
- Entwicklung von Handreichungen und Empfehlungen



© BBK

48

### 4. Verbesserung von Risikoanalysen

- Einbeziehung historischer Hochwasser und Verbesserung des Monitoring (Pegel)
- Bessere Modellierungen und Vorhersagen
  - Verklausung von Brücken
  - Kaskadenrisiken, wie z.B. Erosion
- Vulnerable Gruppen müssen besonders berücksichtigt werden

#### Herausforderungen

- Verbesserung der Gefahren- und Risikokarten sowie der Hochwassermodellierung
- Nutzung durch Operative im Krisenfall



Thielen et al. 2021 based on COPERNICUS Emergency Service

49



## 4. Verbesserung von Risikoanalysen

- Einbeziehung historischer Hochwasser und Verbesserung des Monitoring (Pegel)
- Bessere Modellierungen und Vorhersagen
  - Verklausung von Brücken
  - Kaskadenrisiken, wie z.B. Erosion
- Vulnerable Gruppen müssen besonders berücksichtigt werden

### Herausforderungen

- Verbesserung der Gefahren- und Risikokarten sowie der Hochwassermodellierung
- Nutzung durch Operative im Krisenfall



Hochwassergefährdung HQ Extrem in Sinzig (eigene Darstellung, nach <https://hochwassermanagement.rlp-umwelt.de/servlet/ls/200041/>)

50

## 5. Mehr Raum für Flüsse und Wasserrückhaltung

- Versiegelungsgrad und fehlende Rückhalteflächen
- Hochwasserrückhaltebecken, Überschwemmungsgebiete und Polder
- Diskussion über Rückzug von Siedlungsflächen notwendig

### Herausforderungen

- Verbreitung von Naturbasierte Lösungen und hybriden Nutzungsformen
- Entwicklung von raumplanerischen Instrumenten



Wasserrückhaltebecken (Quelle: B. Thiebes 2021)

51

## 6. Stärkung von kritischen Infrastrukturen (KRITIS)

- Kritische Infrastrukturen (KRITIS) erfüllen eine besondere Rolle für die Funktionsfähigkeit der Gesellschaft
- Grundversorgung der Bevölkerung muss gewährleistet werden

### Herausforderungen

- Definition von sektorübergreifenden Schutzzielen
- Konzepte für Redundanz



©M. Löff, Berufsfeuerwehr Mülheim an der Ruhr

52

## 7. Frühwarnung neu denken

- Frühwarnung ist kein technisches System sondern ein sozialer Prozess
- Ausbau der Sireneninfrastruktur und Einführung von Cell Broadcasts
- Kommunikationswege müssen zielgruppengerecht sein und z.B. Sprache und Alter berücksichtigen

### Herausforderungen

- Risikoangepasste Kommunikation und Handlungsanweisungen
- Verbesserung der Impact Forecasts



■ Das jüngste Opfer war 4 Jahre alt, das älteste Opfer 97 Jahre alt

© erstellt vom DKKV mit Daten der ADD

53



## 8. Krisenkommunikation und -management robuster gestalten

- Viele Verantwortliche innerhalb der Krisenstäbe waren beim Hochwasser im Juli 2021 selbst betroffen
- Reibungsloser Informationsaustausch notwendig
- Bedarf an:
  - Gut geübten Abläufen
  - Organisationsübergreifende Übungen
  - Einsatz von erfahrenen Expert:innen
  - Redundante Kommunikationskanälen



© Nordsee Zeitung

### Herausforderungen

- Entwicklung von Konzepten zur robusten Kommunikation
- Entwicklung kohärenter Lagebilder

54

## 9. Bessere Koordinierung

- Bessere Kommunikation zwischen Einsatzkräften, Freiwilligen und Spontanhelfern notwendig
- Erster Schritt: Gründung des Gemeinsamen Kompetenzzentrums Bevölkerungsschutz (GeKoB) nach der Katastrophe



© Thorsten Trütgen DRK Kreisverband Ahrweiler

### Herausforderungen

- Einbindung von Spontanhelfer:innen
- Abstimmung zwischen Bund, Ländern und der kommunalen Ebene



© Malteser / D.-G. Borchert

55

## 9. Bessere Koordinierung

- Bessere Kommunikation zwischen Einsatzkräften, Freiwilligen und Spontanhelfern notwendig
- Erster Schritt: Gründung des Gemeinsamen Kompetenzzentrums Bevölkerungsschutz (GeKoB) nach der Katastrophe



### Herausforderungen

- Einbindung von Spontanhelfer:innen
- Abstimmung zwischen Bund, Ländern und der kommunalen Ebene

56

## 10. Notfälle planen und üben

- Regelmäßige Durchführung von Notfallübungen
- Übungen sollten auf Risikoanalysen basieren
- Besondere Aufmerksamkeit muss vulnerablen Gruppen gewidmet werden



Notfallübung in Tokio © faz.net



Katastrophenschutztag NRW © johanniter.de

### Herausforderungen

- Konzeptentwicklung für Notfallübungen
- Dokumentation der Defizite in der Notfallplanung und Maßnahmen zu deren Beseitigung

57

## 11. Angepasstes Material für operative Hilfskräfte

- Bedarf an technischer Ausrüstung, z. B. Hubschrauber mit Winden und besserer Schutzausrüstung
- Stärkung professioneller und ehrenamtlicher Hilfskräfte



© ndr.de



© Feuerwehr Herdecke

### Herausforderungen

- Entwicklung von technischen Hilfen und Lehr-Material

58

## 12. Nicht nur wiederaufbauen, sondern „Build Back Better“

- Wiederaufbau sollte als Chance für einen resilienten Umbau gesehen werden
- Wissenschaftlicher und interkommunaler Austausch



Wiederaufbau im Ahrtal © faz.net

### Herausforderungen

- Integration vorbeugender Maßnahmen (und wissenschaftlicher Erkenntnisse) in den Wiederaufbau



Diskussion mit Akteur:innen aus Forschung & lokalen Politiker:innen © Landesregierung Rheinland-Pfalz

59



## Übergeordnete Lehren aus der Flutkatastrophe 2021

1. Stärkung der Risikowahrnehmung und Förderung einer positiven Risikokultur
2. Verbesserung der Risikokommunikation
3. Fokus auf Vorsorge
4. Verbesserung von Risikoanalysen
5. Mehr Raum für Flüsse und Wasserrückhaltung
6. Stärkung von kritischen Infrastrukturen (KRITIS)
7. Frühwarnung neu denken
8. Krisenkommunikation und -management robuster gestalten
9. Bessere Koordinierung
10. Den Notfall planen und üben
11. Angepasstes Material für operative Hilfskräfte
12. Nicht nur wiederaufbauen, sondern „Build Back Better“



60

## Disku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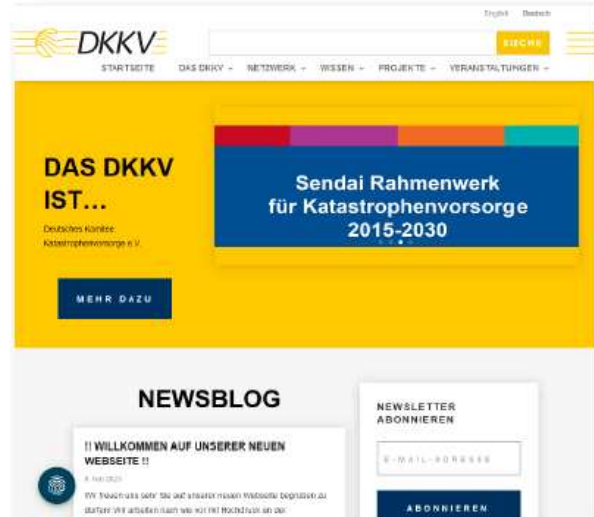
61



## Zusammenfassung

- Seit 30 Jahren ist die DKKV die größte zivilgesellschaftliche Plattform für Katastrophenvorsorge in Deutschland
- Dachverband für Institutionen im Bereich des Katastrophenrisikomanagements
- Unabhängig, neutral, nicht gewinnorientiert
- Umfangreiches und sich ausdehnendes Netzwerk
- Schnittstelle von Wissenschaft, Praxis, Verwaltung und Politik

1. Netzwerk: Expertisen verbinden und Synergien schaffen
2. Beratung: Bereitstellung umsetzbarer Informationen für Entscheidungsträger\*innen
3. Wissenstransfer: Bewusstsein schaffen und Informationen bereitstellen



62

## Vielen Dank für Ihre Aufmerksamkeit

**Dr. Benni Thiebes**

[benni.thiebes@dkkv.org](mailto:benni.thiebes@dkkv.org)

**Deutsches Komitee Katastrophenvorsorge e.V.**

(German Committee for Disaster Reduction)

Kaiser-Friedrich-Str. 13

53113 Bonn

[www.dkkv.org](http://www.dkkv.org) | [info@dkkv.org](mailto:info@dkkv.org)



@dkkv.bsky.social



deutsches-komitee-katastrophenvorsorge-e-v



@dkkv\_germandr



@germancommitteefordisaster4635

